
2020년 제51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12. 11. ~ 12. 17.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12. 11.	시청률	0.055

【총 평】

연말을 맞아 ‘연탄온정’을 비롯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극복하는 스토리를 다양하게 담은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지역사회와 생활주변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과 변화들을 취재해 모두가 관심을 갖는 뉴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산 넘어 연탄배달’은 연말이라는 시점에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좋은 아이템이었다. ‘연의 목공방’과 ‘북 카페’는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을 것 같다. 또, ‘전통 등 만들기 체험’은 코로나19로 가족 간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로 교감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고, ‘신청곡 콘서트’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연주하고 노래하는 형식이었는데 가족 간 또는 친구 사이의 애뜻한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위안이 되고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코로나19 한파 녹여요, 산 넘는 ‘연탄온정’은 산동네에 사는 저소득층 노인 가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산을 넘어 연탄을 짊어지고 가서 전달하는 모습이 훈훈하게 다가왔다. 특히, 겨울철 연탄 배달 봉사는 시의성 있는 소재였으며, 에너지빈곤의 실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작년 대비 연탄 지원 자원봉사자의 급감 상황을 언급해 시청자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었다.

‘삭막한 도시, 주민·지자체 합심으로 변신’은 골칫거리가 환경명소로 변신 하는 과정이 잘 그려져 환경 리모델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방치된 건물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생활밀착형 소식으로 작은 도서관, 학습센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유사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글로벌 리포트 ‘코로나19에 동물도 수난, 터키, 거리 동물 돌봄 나서’는 유기동물 보호소까지 운영하며 거리동물 돌봄에 나서는 터키의 모습을 전했다. 거리 동물 돌봄은 보편적 관심사로 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동물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경직된 근육 풀어요, 춤으로 파킨슨병 이긴다’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몸이 자유롭지 않는 파킨슨병 환자들이 전문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며 경직된 몸을 푸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도 풀고 있다. 춤으로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방식은 4년 전부터 일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소규모 가족 초대, 전통등 만들기 체험’, ‘2020 메모리즈 인 서울’ 버스타고 과거로 쏙, 신청곡 들려줘요 특별한 음악회 ‘신청곡 콘서트’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공감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12. 12.	시청률	0.101

【총 평】

부산 피난민들의 애환과 역사가 응집된 ‘역사의 뒀안길, 산복도로’를 방송하였다. 부산의 산복도로는 개항기 때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외지인부터 한국전쟁 시절 피란민들과 이후 산업화 진행으로 농촌을 떠나 온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의 경사진 산비탈을 연결하는 길로 부산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우리의 근현대사와 현재를 담은 부산 산복도로에서 굽이굽이 난 산비탈, 낮은 담벼락과 수많은 계단으로 이뤄진 산복도로의 인문학적 근간을 설명하였고, 시청자들에게 산복도로의 변화된 역사적·지역적 가치를 들려주었다. 아름다운 부산 풍광과 새로운 이야기 발굴, 한 지역을 샅샅이 살펴보려는 연출과 내레이션 대본 구성, 편집 등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부산의 산복도로는 평지보다 산지가 많은 부산에서 산중턱 위로 집을 짓고 살아야 했던 마을을 산 아래 도시와 연결시켜 주기 위한 도로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기의 역사적 자원이자 부산의 서민적 애환이 담긴 곳으로 부산의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지금은 어촌의 정겨운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산복도로의 역사부터 부산역까지 소개하면서 부산이 걸어온 아픈 근현대사의 역사를 정리했다. 유치환·김민부·김정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부산의 고유한 역사를 소개했다. 이 밖에 부산의 명물인 철새, 남산창고터, 아미동 비석마을, 부산감천문화마을, 부산 임시수도청사와 대통령 관저 등을 차례로 나열했다.

프로그램 시작은 산복도로의 의미와 주민들의 애환을 그려냈다. 산복도로를 올라가는 과정이 시청하는 입장에서든 따라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 부산역으로 이동해서 현대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애환과 한국전쟁까지 부산의 역사를 가늠하게 해주었다.

초량 이바구길에서부터는 아픈 역사에만 얽매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서려는 부산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168계단의 계단마다 새겨진 조형물을 보는 것도 상당히 신기했다. 또, 벽화나 조형물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산복도로에는 유치환의 우체통 전망대, 김민부 시인의 ‘기다리는 마음’ 시비 등이 있는데 비탈진 산동네를 관광객들이 단골로 찾는 관광지로 지혜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유치환 시인부터 시작해서 김민부 시인, 김정한 작가까지 세 명의 작가가 소개되었는데, 특히 김민부 시인은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 ‘자갈치 아지매’를 기획한 PD로 그가 작사한 가곡, ‘기다리는 마음’을 성악가가 들려주어 곡에 담긴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김정한 작가의 소설 ‘모래톱 이야기’의 배경이 된 을숙도, 한국전쟁 당시 3년 동안 임시수도였던 건물과 당시 물건들을 전시한 공간, 송도 해수욕장, 돼지국밥과 비빔당면 같은 부산의 음식까지 부산의 인문지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12. 12.	시청률	0.060

【총 평】

‘낙원의 소리, 낙원악기상가’는 오랜 세월 악기들의 고향이라 불리던 곳, 나이를 먹은 악기들이 다시 태어나는 곳, 낭만이란 이름이 시작되는 곳, 낙원의 소리가 들리는 낙원악기상가의 모습과 소리들을 담아보았다. 특히, 반백년을 넘긴 낙원악기상가의 어제와 오늘, 유래와 역사, 악기시장을 지켜온 사람들, 연주와 노래가 있는 풍경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내 추억을 소환한 기획이 돋보였다. 낙원악기상가에 입점한 상점들과 다양한 악기들, 악기수리명장, 젊은 음악인들의 꿈들로 구성했다.

【구성 및 내용】

종로 2가와 3가 사이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 300여개 악기점포가 한데 모인 낙원악기상가는 악기를 구입하러 온 소비자가 상점주인에게 원 포인트 레슨을 해주기도 한다. 철거될 위기를 겪기도 하며 반백년을 지낸 낙원악기상가는 원래 학생 백화점이었다. 낙원악기상가는 원래 2층만 악기상가이고 3층은 사무실이었는데 2000년도부터 3층도 악기상가로 꾸러졌고, ‘규모가 이렇게 큰 곳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했다. 보통은 낙원상가라고 하면 오래되고 낙후된 이미지로 느낄 시청자가 많은데, 자부심 느끼게 하는 ‘사실들’이 주목을 끌었다.

낙원악기상가는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능이 악기수리, 정비이다. 일종의 악기 종합병원이라고 볼 수 있다. “골골대던 악기가 젊음을 되찾아 간다”는 말처럼 사람처럼 나이를 먹는 악기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주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곳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상점들이 있다. 낙원악기상가의 존재이유, 고객이 찾는 이유이다.

약 60년간 낙원악기상가의 터줏대감으로 플루트를 수리해온 장인을 소개했는데, 그의 둘째며느리가 도제방식처럼 옆에서 일을 배우고 이어 받고 있었다. 6.25 전쟁 이후 금은방에서 세공일을 하다가 악사들의 악기를 수리하면서 시작된 악기와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낙원악기상가는 처음 만나도 자연스레 어우러지고 음악으로 소통되는 모습이 등장했고, 실향민들이 아코디언 연주 소리에 이끌려 들어와 눈물을 짓고 대화를 하는 등 ‘모든 세대가 고르게 어우러지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음악이 가진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훈기와 정겨움이 감돌아 여운이 길게 느껴졌다. 아날로그 정취가 담기고 추억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따뜻함이 그리운 겨울과 잘 어울렸다. 10년 차 아르바이트생인 29세 청년은 코로나19로 밴드활동을 접고 혹독한 초겨울을 이겨내고 있었다. “백신 나오고 하면 내년엔 더 낫지 않을까요.”라는 말에서 2021년 낙원악기상가의 희망을 기대해 본다. 낙원악기상가는 여전히 음악인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많은 음악인들이 꿈을 노래하고 연주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2. 12.	시청률	0.164

【총 평】

‘나우북(NOW 北)’은 북한, 코로나19 방역 ‘초특급’ 단계로 재격상과 식량난에 농태기 제조·판매 단속” 등을 다뤘다. 또, 시청자 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단박톡’은 “북한에 스마트폰 전용 전자결제 앱 존재 여부”를 알아보면서 북한의 전자결제 시스템 ‘울림 2.0’의 실체를 보여주어 신선했다. 또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한 화폐 개혁이 갖는 의미와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했다.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나우북(NOW 北)’은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초특급 단계로 재격상한 배경과 실태 위주로 다루었고, 북한 식량난속에 등장한 농태기와 금주령을 내리게 된 배경도 살펴봤다. 단박톡은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 되짚었고 근본적인 타개책을 살펴보았다.

‘나우북(NOW 北)’은 “북한, 코로나19 방역 ‘초특급’ 단계로 재격상”을 다루었는데, 북한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태도와 현재 북한 상황을 읽을 수 있어 흥미로웠고, ‘시청자 픽’까지 덧붙여져 북한 관련한 소문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였다.

북한이 초특급 단계로 재격상 했다는 의미는 통제 불가능한 팬데믹이라는 의미로 우리의 3단계에 해당되며, 초저녁 6시부터 통행금지를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에 초강수를 둔 상황이다. 특히, 어업과 염전 등 자연 현상까지 통제하는 북한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역 행태와 수용소 수용자들을 석방할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상태와 경제 상황을 보여주었다. 또한, 상식적이지 않은 비과학적인 방역 조치로 세계를 당황하게 만든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현실을 소개하였다.

또, 북한의 ‘농태기 제조와 단속’을 소개했다. 북한은 왜 농태기를 밀주라고 하는지, 밀주 제조와 식량난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북한 주민들은 밀주 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데 어떻게 판매를 하는 지, 25도 평양소주가 국주로 정해진 이유, 같은 듯 다른 남북한의 술 문화까지 살펴보아 북한의 일상 문화를 엿보는 재미와 북한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단박톡’에서는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전자결제 시스템과 금융서비스 부분을 다룬 “북한에 스마트폰 전용 전자결제 앱 존재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북한의 화폐 개혁이 주는 시사점과 전자결제 시스템 ‘울림’이 갖는 의미, 실제 북한의 스마트폰 결제 앱을 엿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 북한은 강력한 대북제재, 코로나19 장기화, 장마 피해와 심각한 태풍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어서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북한의 장기화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방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12. 12.	시청률	0.000

【총 평】

충남 보령시에서 숙원사업 합동설계TF팀을 운영해 예산절감, 사업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전주시 완산구 서지마을은 새만금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마을 진입로의 통행 불편 사항을 관계기관의 조정으로 해결방안을 찾았다. 주민 고충사항이 관계기관의 협조와 조정으로 개선되었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준 사례였다. 특히 생각을 달리하면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주민민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사후 관리와 주민 만족도까지 살펴보는 구성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충남 보령시의 공사 전 합동설계TF팀 운영은 주민의견 사전 반영으로 신뢰도를 높였고, 전주시 완산구의 서지마을 통행 불편은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신규 진입로 대신 기존 진입로 확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민 만족도를 높인 점이 인터뷰 등에서 확인되었다. 또, 국민권익위의 조정 효과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 숙원사업 합동설계 TF팀 운영

충남 보령시는 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18명의 합동설계 TF팀을 구성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한다. 원래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지만 측량 등은 총 사업비 중 최대 10%까지 비용이 소요되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합동설계 TF팀을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 사업팀장 인터뷰를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마을을 방문해 사업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소하천 정비 현장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 집행 일정과 주민들의 만족도, 나아가 주민 입장에서 얻게 되는 장점 등에 대해 언급해 그 전망과 효과를 알 수 있었다.

■ 마을 진입로 공사로 통행 불편

전주시 완산구의 서지마을 주민들은 새만금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마을 진입로에 대형 공사차량이 수시로 드나들어 주민들의 통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해당 진입로가 마을과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길로 마을에서는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안전문제 등이 생겼다. 이에 서지마을 주민은 신규 진입로 개설을 도로공사측에 요청한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새 진입로 개설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책임주체도 불분명한 상황이라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권익위도 도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신규진입로 공사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기존 진입로를 확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유지 편입 등 제반 사항을 진행하여 주민, 도로공사, 완산구, 권익위는 조정내용에 합의하였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12. 13.	시청률	0.202

【총 평】

올해를 돌아보는 연말특집 '2020년을 돌아보다 1부-코로나19와 사람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4명의 수범사례를 통해 공동선을 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시 한 번 돌아본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스토리가 큰 감동을 선사했다. 장애인에게 브리핑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김동호 수어통역사, 재난지원금을 손쉽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신용카드 접속방법을 아이디어로 낸 이빌립 사무관, 진단키트를 개발한 차미정 부장,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해 앞장선 홍채운 놀이공원 직원이 우리 사회의 숨은 일꾼이자 영웅이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어떻게 타개 했는지 그 과정을 탐색한 구성이 몰입도를 높였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소개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민주시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 해를 돌아봤는데,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나름 의미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낸 사람들에게 대한 취재로 방향을 잡은 점이 좋았고 그래서 더 메시지의 강도를 키울 수 있었다.

우리가 매일 접하면서도 무심하게 지나쳤던 수어통역사들의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매일 진행되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위해 총 6명의 수어통역사가 돌아가며 담당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의학 등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됨에 따라 더욱 많은 준비가 요구된다.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낸 이빌립 사무관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는데 당연시했던 관례를 깨고 발상의 전환을 한 케이스라 의미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와 협업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진단시약업체에서 만난 차미정 부장의 경우 개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 좋았고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담긴 인터뷰도 여운을 남겼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에 진단키트 튜브를 수입하던 독일 업체로부터 물량을 확보할 수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일회용품을 재활용해 생활용품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롯데월드 케이스는 환경문제라는 점에서 의미 있었고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해당업체는 놀이공원에서도 매일 엄청난 PET병이 발생되어 업사이클링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2. 13.	시청률	0.012

【총 평】

50년 전통의 방앗간을 3대째 이어가고 있는 귀농 23년차 조은희 대표의 '56년 전통방앗간의 화려한 변신'을 소개했다. 주인공은 전남 여수의 방앗간에서 자연 식재료로 떡을 만들고, 밭에서는 배추를 키우며, 바닷가에서 캐낸 굴로 소비자를 찾아가는 역순이 사업가이다. 그녀가 역순이 농촌 살림가가 된 이유는 자체적인 변화와 마을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물건을 판다'는 개념보다 '행복을 나눈다.'는 철학으로 6차 산업에 뛰어든 억척 귀농인이다.

그녀가 다양한 장사 경력이 밑바탕 되어 시골 방앗간에 변화를 주기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데는 방앗간을 물려준 시어머니와 아들이 지원군이기 때문이다. 거창한 사업 구상은 아니지만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점, 마을을 변화하기 위해 나부터 변화하고자 땀 흘린다는 점, 돈을 쫓지 않고 정성과 인내로 대가를 기다리는 주인공의 넉넉한 꿈 덕분에 마음도 훈훈했다.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은 김장철을 앞두고 봄비는 방앗간의 풍경과 이곳의 단골손님들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또, 2년 전부터 시작한 배추 농사에 대해 소개하고 배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가래떡, 쭉떡, 호박떡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과정을 담으면서 떡에 담긴 정성을 강조했다. 제철 맞은 굴을 직접 손질해서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모습과 단골손님들의 반응을 다루었다. 또한, 농사를 시작하고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주로 다루었고 이를 통해 귀촌의 보람과 주인공의 최종 꿈까지 함께 언급하며 마무리를 지었다.

특히, 방앗간의 제 기능인 떡 제조 장면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만드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다. 방앗간에 떡 카페에 농사에, 최근에는 굴 판매도 시작해서 바쁘게 살고 있는 주인공을 보니 시청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힘이 되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좋았다. 직접 농사지은 좋은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내놓는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이 더욱 돋보였다. 이 밖에 전직 방앗간 주인이었고, 평생 고생인 줄 모르고 자식 위해 살아온 시어머니의 인생을 대단하게 평가하는 며느리로서의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다. 1대 사장인 시어머니와 2대 사장인 주인공, 3대 사장인 아들이 함께 모여 있어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농사를 이어 받은 아들의 대를 잇는 귀촌 생활의 모습이 부각되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매일 반복되는 방앗간 일상이지만 주인공에게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떡을 향한 주인공만의 자부심과 자긍심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시청자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한 방송이었다.